



## 열아홉번째 이야기

# 독수리 날개시뭇

[ 2020 '준비하라' 시리즈 ⑥ ]

### 부산BEE 발자취 돌아보다.

부산BEE는 2007년 한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선교지로 가시면서 이어 두 분의 목사님들께서 차례로 부산BEE의 지부장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지부장님이 계셨던 2007년~2012년까지 77개의 세미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분들의 헌신 위에 인도자와 부인도자들이 많이 세워져 저 역시 2009년부터 인도자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지부장 목사님께서 타지역으로 가시면서 부산BEE의 구심점이 사라져 지난 7년간은 지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가을학기 로마서 세미나 및 종강

### 부산BEE의 한계에서 배우다.

처음에 인도자, 부인도자 대부분은 교회에 속한 목회자분들이었습니다. 교회 사역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BEE 세미나를 위해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역지가 바뀌고 담임목회가 아닌 관계로 BEE를 더 이상 인도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과정을 보며 평신도 인도자가 필요함을 보게 되었고 네 분의 평신도를 FA까지 세우는 과정에 이르렀지만 안타깝게도 지부장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저 역시 선교지로 가면서 부인도자들을 인도자로 세우기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갈 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2년 간의 단기 사역을 마치고 2015년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부산BEE의 세미나는 없었습니다. 개교회의 목회자로 계신 인도자분들도 사역으로 바빠 움직일 여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 역시 영적으로 지쳐 2015 봄학기 로마서 인도를 끝으로 쉬게 되었습니다.



2019년-2020년 갈, 롬, 그삼 수료예배 및 나들이

이 모든 과정을 보며 내린 결론은 부산BEE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부산BEE 지부에서 자리를 지켜줄 지부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인도자와 목회자 인도자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BEE 사역에는 많은 헌신이 필요한데 교회 중심의

사역으로 바쁜 목회자 인도자는 안정적으로 BEE 사역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신도 사역자였던 저는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신뢰를 받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한 예로 목회자가 바쁜 경우, 목회자가 연 세미나의 인도를 평신도 인도자인 제가 부탁받고 섬겼는데, 평신도 인도자인 저로서는 신뢰성에 대한 부담이 줄고 목회자 인도자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 사역에 집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부산BEE 재도약을 꿈꾸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전과 후로 세상이 나뉜다.’라고 할 정도로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저의 신앙에 변화를 준 것은 바로 BEE의 세미나를 통해 배운, 바로 ‘종에서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해 BEE 인도자로서 섬겼습니다. 선교를 다녀온 후 영적으로 지치기도 했지만, 저를 다시 일으킨 것도 BEE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휴식기가 끝나갈 때쯤, 지난해 9월 송명주 인도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을 갈라디아서까지는 인도할 수 있는데 교회 사역이 바빠 로마서부터 어렵습니다. 집사님, 인도해 주실 수 있나요?”라는 부탁을 받고, “기도하며 고민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후 기도하며 세미나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계신 모습을 보며 제가 처음 갈라디아서를 할 때, 그 설렘과 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인도자들을 세우지 못하고 부산BEE가 유명무실해진 것에 대한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팀과 함께 로마서와 그리스도인의 삶 세미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참석하시는 분들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을 배웠으며, 저의 삶 또한 세미나를 통해 다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덕분에 서울BEE본부의 마가복음을 온라인으로 수강했습니다. 세미나를 마치면서 하나님 영광의 회복을 위해 고난의 길에서 순종하신 주님을 뵈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하길 원하는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순종의 걸음으로 6월 말부터 토요일 아침 온라인으로

부산BEE의 재도약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8월 29일 대면 모임에 서른여 명이 참석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부산BEE에 대한 마음도 주시고 기도회와 부산BEE를 위해 헌신할 분도 보내셨기에 이제 다시 재도약을 꿈꿔 봅니다.



BEE KOREA 2020년 여름 갈라디아서 종강 부산 토요일기도모임

**부산BEE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다.**

1. 연말 BEE 정기 이사회에서 부산BEE 지부가 재승인되고 활성화되어 영남지역과 선교사님을 섬길 수 있도록
2. 부산BEE 한분 한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더욱 닳아 하나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 되도록
3. 자원함으로 많은 이들이 BEE 사역을 섬기며 2021년에는 인도자 2명, 부인도자 6명 이상이 세워지도록
4. 온라인 기도회에 은혜 주시고 잠정 연기된 대면 모임을 허락하셔서 하나됨을 경험하도록

[글쓴이: 설동섭 집사]



2007년 청년부 전도사님의 권유로 시작한 BEE를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제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 2009년부터 인도자로 섬기고 있으며, 현재 부산 소명교회 아동부 교사로 섬기고 있으며, 초등학교 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리 및 편집: 최선]



선교지  GHANA



가나의 생활 문화 - 가나에서는 아기들 예방 접종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하얀 천을 입고 체중을 잰다. 사진 속 아기 예성이가 떨어질까봐 체중계 아래에서 받치고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BEE 소식

1. 2020년 하나님의 “준비하라”라는 음성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준비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암4:12)
2. 이번주 암송구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2:8-9)."
3. 2020 하반기 온비아 온라인 세미나가 이번주 시작되었습니다. 랜선을 통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모이기를 함께 기도해요.